

백악관 “한국 불안정성에도 동맹관계 굳건”

안보 협력, 정치 관계보다 우선

박대통령 진퇴문제 언급 피해

“정상 간 접촉 9월 이후 없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 내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시 에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미관계,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까운 동맹이었다”면서 “그 한미동맹의 힘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또한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을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안보관계는 굳건하고 매우 중요해 정치적 관계에 우선한다”면서 “양국 국민의 유대는 한미관계가 얼

마나 중요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분명히 정치에 우선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배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양국의 강한 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투자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 증진은 물론 양국의 국가안보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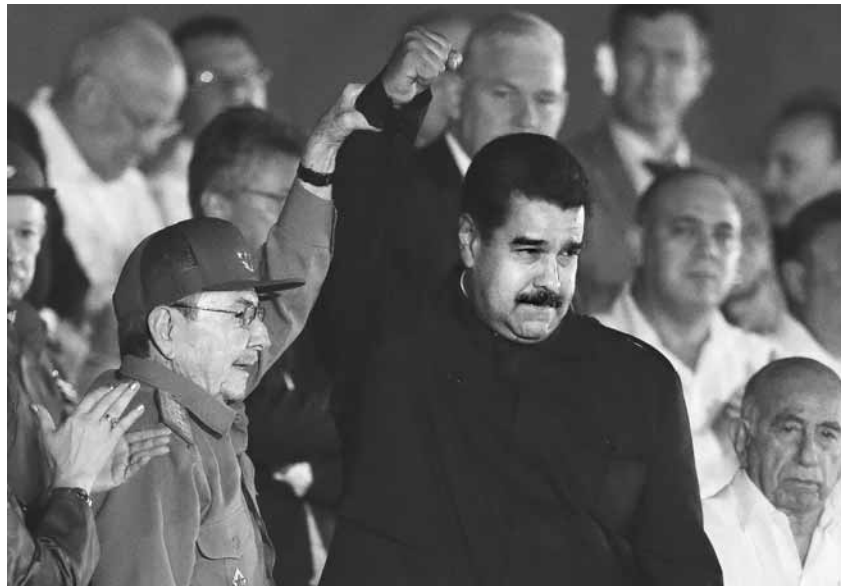
에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국 내부에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양국 간의 현행 한미동맹은 여

전히 굳건하고 지속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과의 최근 대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지난 9월 이후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초 라오스에서 박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직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몇 시간 지나 전화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그 이후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새로운 게 있으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열린 피델 카스트로의 장례식에서 라울 카스트로(왼쪽)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추도사를 마치자 조문을 온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DI “트럼프 정부, 중국 견제 위해 한미동맹 유지할 것”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북 노선으로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와 한반도 :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 협의회 내용을 전했다.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지난 16일 김홍규 아주대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트럼프가 이룰 미국 신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 한미 관계,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에 안보 비용 관련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군비 부담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미일 동맹이라는 가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차원의 동맹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동맹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의 불만을 반영해 고립주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에게 안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

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가능하기 어려운 만큼 “트럼프 보좌진, 트럼프 당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구조적 영향 등이 어떻게 변할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대화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이미 포기됐다”며 “앞으로 트럼프 신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와 주변 참모들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북한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대북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매우 강압적인 대북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주요 요직에 인선된 강경파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평화적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 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안보프로그램 소장 역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논문에서 “대선 직후 트럼프의 강경파 인선을 볼 때 위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면서 “대통령 취임 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갑작스럽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카스트로 장례식에 좌파 인사들 모인다

한국, 조문단 보내지 않기로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장에 중남미 대통령들과 반군, 좌파 배우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전망이다.

CNN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쿠바 공산혁명의 지도자인 카스트로의 장례식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카스트로의) 총성자, 마르크스주의 반군, 할리우드 배우 등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인사들의 조합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카스트로가 좌파의 아이콘이었던 만큼 중남미 좌파 정권의 대통령 참석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니콜라스 마두로), 볼리비아(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라파엘 코레아), 니카라과(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데라) 등 좌파 대통령들이 장례식에 참석한다.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중남미의 좌파 세력을 지원했다.

콜롬비아 최대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인사도 쿠바를 찾아 카스트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본다. 올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권 성

향이 우파로 바뀐 브라질은 장례식에 주세 세하 외교장관과 호베르투 프레이리 문화장관 등 장관 2명만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국가들도 거물급 인사를 다음 달 4일에 있을 카스트로 장례식장에 보낼 예정이다.

중국을 쿠바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을 파견한다. 북한에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평양을 떠나 쿠바로 향했다.

아프리카에선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카스트로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쿠바에 이미 도착한 상태다. 카스트로 장례식에 대체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남미 좌파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 등 서방국가의 사절단 급은 낮은 편이다.

카스트로가 쿠바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혁명의 아버지’일지는 몰라도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로 여겨지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사절단 외에 할리우드 배우의 참석도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유엔에이즈 친선대사에 중국 배우 황샤오밍

중국의 유명배우 황샤오밍(黃曉明·39)이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친선대사에 임명됐다.

지난 30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황샤오밍은 지난 28일 베이징(北京) 소재 UNAIDS 중국지부에서



임명장을 받았으며 앞으로 친선대사로써 중국 내 에이즈 퇴치를 위한 각종 홍보·자선활동을 진행한다.

중국의 톱스타인 황샤오밍은 동료 여배우 안젤라 베이비와의 결혼으로도 화제를 뿌렸으며 빈곤아동 지원과 동물보호 등 각종 공익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연합뉴스



시리아 2만7000명 대피난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알레포 동부의 반군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가운데 이곳 주민 2만7000명이 피란길에 나섰다. 시리아내 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군 공습으로 많은 피란민이 알레포 탈출과정에서 숨졌다는 주장도 제기돼 유엔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자학원인근 공장일집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점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토지 2,911,9㎡ 건물 1,811,2㎡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10,730평 담양읍에서 15분거리, 매매가 8억5천, 투자가치 최상 전원주택지 및 요양병원 적합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임대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임대 13억5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건물]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임대 18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1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산구 80미터 도로 3층 무인텔 토지 717평 건물 835평 매매가 56억 (용28억)투자 최상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